

PA-22

벼 생태형 품종에 따른 재식밀도 및 이앙시기별 수수와 수전일수

이성태^{1*}, 성덕경¹, 이병한¹, 이종기¹, 김영광¹¹경상남도 진주시 대신로 570,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서론]: 농촌 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고령화 추세로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벼 재배에 있어 파종, 육묘 및 이앙 작업에 투입되는 노동력은 전체 노동시간의 29%를 차지하고 있어 노동력 절감을 위한 재배기술이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벼 드문모심기는 육묘상자 당 파종량을 늘려서 육묘하고 재식거리를 넓혀 이앙함으로써 육묘상자를 줄여 육묘에 필요한 노동력과 비용을 줄이는 기술이다. 재식밀도를 낮추어 이앙하면 주당 이삭수가 증가하고 이삭수가 많으면 수전일수에 영향을 미치고 수전일수가 길어지면 수확 시 같은 벼 포기 내에서도 등숙률의 차이로 쌀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시험은 벼 드문모심기 기술 안정화를 위해 벼 생태형 품종별로 재식밀도 및 이앙시기에 따른 수수와 수전일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재료 및 방법]: 본 실험은 경상남도 진주시 초장동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시험연구포장에서 실시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벼 생태형 품종은 주당 이삭수가 많은 수수형 품종인 영호진미와 주당 이삭수는 적지만 이삭 무게가 많은 수중형 품종으로 수광을 실험에 사용하였다. 2품종 모두 육묘를 위해 상자 당 300g을 파종하였고 15일 육묘한 것을 이앙하였다. 재식밀도별로는 3.3m² 당 주수를 37주, 50주, 60주 및 80주(관행)로 처리하였고 이앙시기는 조기(5월10일), 적기(6월5일), 만기(6월20일)로 이앙하였다. 벼 이삭수와 수전일수 조사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연구조사분석기준에 따라 수행하였다.

[결과 및 고찰]: 영호진미(수수형)와 수광(수중형) 모두 재식밀도가 낮을수록 주당 수수는 증가하였으나 m² 당 수수는 감소하였다. 영호진미를 적기 이앙하였을 때 3.3m² 당 37주, 50주, 60주, 80주에서 주당 수수는 각각 36.4, 26.0, 24.4 및 18.9개 이었고 m² 당 수수는 각각 404, 394, 452 및 450개로서 3.3m² 당 60주와 80주 이앙에서는 수수의 차이가 없었다. 수광(수중형)은 만기 재배에서 3.3m² 당 60주와 80주 이앙의 m² 당 이삭수는 각각 341개 및 340개로서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영호진미와 수광 모두 재식밀도가 높아 주당 이삭수가 적을수록 수전일수는 짧고 재식밀도가 낮아 주당 이삭수가 많을수록 수전일수는 증가하였지만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다. 조기와 적기 이앙에서 영호진미의 재식밀도간 수전일수 차이는 2일, 수광은 1일 이었고, 만기 이앙에서 수전일수는 영호진미 0일, 수광 2일 차이가 있었다.

[사사]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아젠다 사업 (과제번호: PJ014886112021)의 지원에 이루어진 결과로 이에 감사드립니다.

* (교신저자) E-mail. Ist08@korea.kr Tel. 055-254-1222